



2021

한-EU 무역 및 투자관계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EUROPEAN UNION–SOUTH KOREA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유럽연합 - 대한민국
무역 및 투자관계 2021

Contents

- 04 인사말
- 05 한-EU 통상 관계 개관
- 07 1. 한-EU 상품 무역
- 11 2. 한-EU 서비스 무역
- 14 3. 한-EU 외국인직접투자

인사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대사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기 시작한 후, 전세계 모든 사회와 경제의 회복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는 세계 무역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교역액은 9% 감소했으며, 상품 및 서비스 교역액은 각각 6%와 16.5%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적인 진단검사 및 접촉자 추적과 같은 효율적인 조치 덕분에 초기부터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며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2020년 단 -1% 역성장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한국 경제가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 전부터 신흥 경제국들에 있어 모범사례로 꼽혀왔으며, 점차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EU는 2020년에도 비교적 견실한 양자 교역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양자 교역 규모는 2020년 약 900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EU의 8대 수입 파트너이자 9대 수출 시장으로 인도나 캐나다 같은 경제 대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EU는 상품 무역 기준 한국의 3대 교역 파트너로서 더욱 굳게 자리매김했습니다. 2020년 전년 대비 양자 상품 교역이 1.6% 하락했지만, 동 기간 EU의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규모는 11%나 축소되었습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은 여전히 한-EU 경제 관계의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1년 발효 이후 한-EU FTA는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결과를 창출했습니다. 2020년 한국과 EU간 상품 무역 규모는 2010년 대비 45.9% 증가했으며, 2019년 양자 서비스 무역 규모는 2010년 대비 86.3%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경우, EU는 계속해서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FTA 이행과 관련해, 한국은 FTA 체결 당시 약속된 바에 따라 한국의 노동 및 노동조합 관련법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성과들을 돌이켜보며 올해 한-EU FTA 이행 10주년을 기념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지속가능한 회복 전략을 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전세계 모든 경제와 사업 및 생계 재건을 위해 국제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함께 보다 나은 재건을 이뤄야 하며, 이는 좀 더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기업들 앞에는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한국과 EU 양측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놓여 있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 모두 보건 위생 및 무역 분야에 있어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과 EU가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EU 통상 관계 개관



전 세계 상품 무역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EU는 전 세계 최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시장이자 수입시장이다.¹⁾ 경제대국 가운데, 무역이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EU다.²⁾ 최근 몇 년간, EU는 여러 신흥국 및 선진국과 새로운 FTA를 체결하며 국제무역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더욱 강화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은 2020년 GDP³⁾ 1.7조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경제 규모 기준 전 세계에서 10위, 아시아에서 4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GDP 기여도는 39.9%였다.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EU 경제는 2020년 상반기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에는 상당한 회복력을 보여줬으며, 3분기 코로나19가 재확산 되기 전까지 강하게 반등했다. 2020년 유로권 및 EU GDP는 각각 6.8%, 6.4% 하락했다⁵⁾. 하지만, EU GDP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3.7%,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유로권 GDP는 두 해 모두 3.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⁶⁾

코로나19의 진화 및 대규모 백신 접종 성공의 불확실성과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EU 경제는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의 강력한 경제 모멘텀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전면 봉쇄 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엄격한 바이러스 통제 노력, 3분기 이후의 수출 회복세,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제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규모 재정 부양책에 힘입어 2020년 GDP가 단 1% 하락하는 데 그쳤다. 2020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금융 관련 지표들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출과 투자 회복 그리고 소비심리지수 개선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1년과 2022년 평균 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⁷⁾

1) 출처: 무역총국, 유럽집행위원회

2) 출처: 무역총국, 유럽집행위원회

3) 명목 (추정치). 출처: 한국은행(BoK)

4) 출처: 세계은행(2019)

5)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2021년 2월 연간 성장에 관한 1차 추정치(계절 및 달러 조정된 분기 데이터 기준)

6) 출처: 2021년 2월에 발간된 유럽경제전망 2021년 겨울호

7) 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0년, 한국의 수출액은 5.5% 감소한 5,125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의 25.9%를 차지한 중국이 또다시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꼽혔다. 이어 미국(14.5%), 베트남(9.5%), EU (9.3%), 홍콩(6%), 그리고 일본(4.9%)이 그 뒤를 따랐다. 수입국 순위는 중국(23.3%), EU (11.9%), 미국 (12.3%) 그리고 일본 (9.8%)⁸⁾ 순이었다.

2011년 7월 1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지난 10년간 양자 무역 및 투자는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과 EU간 상품 무역은 2020년 전년대비 1.6% 소폭 하락하긴⁹⁾ 했지만, 2010년과 2020년 사이 45.9% 증가했다. EU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여전히 한국의 3대 무역 파트너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양자 서비스 무역은 2010년과 2019년 사이 무려 86.3%나 늘어났다. 2019년에는 전년대비 5.3% 증가를 기록하였는데, 동기간 EU의 대(對)한국 수출은 5.4% 증가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5.2% 늘었다.¹⁰⁾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잔액을 보면, EU는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전체 FDI 잔액의 37%), 이는 일본(24.3%)이나 미국(14.5%)¹¹⁾ 보다 큰 규모이다.

앞서 언급된 수치들은 한국과 EU간에 구축된 중요한 경제적 관계를 잘 나타내준다. 한-EU FTA 덕분에 상품 및 서비스 시장 확대 및 접근성이 강화되고,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양자 무역 및 투자 관계 강화 및 심화에 크게 기여했다.

8) 출처: 한국무역협회(KITA)

9)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10)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11) 출처: 한국은행(2019). 영국을 포함한 EU 28개 회원국 자료만 제공 가능.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데이터는 2021년 6월 업데이트될 예정

1. 한-EU 상품 무역

한-EU FTA는 EU가 체결한 “차세대 FTA(new-generation FTAs)” 가운데 하나로 EU가 맺은 무역협정 가운데 이론의 여지없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된 포괄적인 협정이다. 한-EU FTA는 EU-캐나다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EU-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EU-싱가포르 FTA 및 EU-베트남 FTA를 포함해 EU가 그 후 체결한 FTA에 있어 기준이 되었다.

한-EU FTA는 굉장한 성과를 이뤘다. 무역 자유화 덕분에 한국과 EU간 무역 흐름은 크게 증대되었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제고되었으며, 한국과 EU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2011년 이후, 한국과 EU간 상품 무역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무역 규모가 900억 유로에 달했다. 2020년 한국은 EU의 8대 수입국이었으며(전체 수입의 2.6%), 9대 수출국(전체 수출의 2.4%)이었다. 같은 해, EU는 한국의 3대 수입 시장(전체 수입의 11.8%) 그리고 4대 수출 시장(전체 수출의 9.3%)을 기록했다.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EU의 대한민국 수입 및 수출은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2020년 양자간 상품 무역은 2010년 대비 45.9% 증가했으며, 동기간, EU의 대한민국 수입은 23.2%, 대한민국 수출은 77.8% 상승했다.

2013년과 2016년 사이, EU의 오랜 대한민국 무역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2017년, EU의 경제 회복 가운데 한국의 對EU 수출이 전년 대비 27%나 증가하며 한국은 다시 對EU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 흑자 기조는 2019년까지 지속되었다. 2020년, EU 27개 회원국은 12억9백만 유로에 달하는 대한민국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2020 EU 27개 회원국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상품 무역 규모 (1백만 유로)

	EU의 무역 총액	백만 유로	비율 (%)	EU의 수입	백만 유로	비율 (%)	EU의 수출	백만 유로	비율 (%)
	EU 27개 회원국 외	3,618,243	100.0	EU 27개 회원국 외	1,704,423	100.0	EU 27개 회원국 외	1,913,821	100.0
1	중국	586,032	16.2	중국	383,519	22.5	미국	352,955	18.4
2	미국	555,004	15.3	미국	202,049	11.9	영국	259,821	13.6
3	영국	417,434	11.5	영국	157,614	9.2	중국	202,514	10.6
4	스위스	250,990	6.9	스위스	108,614	6.4	스위스	142,376	7.4
5	러시아	174,195	4.8	러시아	95,214	5.6	러시아	78,981	4.1
6	터키	132,484	3.7	터키	62,607	3.7	터키	69,876	3.7
7	일본	109,362	3.0	일본	54,860	3.2	일본	54,502	2.8
8	노르웨이	90,904	2.5	한국	44,064	2.6	노르웨이	48,602	2.5
9	한국	89,338	2.5	노르웨이	42,302	2.5	한국	45,274	2.4
10	인도	65,220	1.8	베트남	34,421	2.0	캐나다	33,339	1.7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1. 한-EU 상품 무역

2020 한국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상품 무역 규모 (1백만 달러)

순위	한국의 무역 총액	백만 유로	비율 (%)	한국의 수입	백만 유로	비율 (%)	한국의 수출	백만 유로	비율 (%)
	전 세계	980,131	100	전 세계	467,633	100	전 세계	512,498	100
1	중국	241,450	24.6	중국	108,885	23.3	중국	132,565	25.9
2	미국	131,608	13.4	미국	57,492	12.3	미국	74,116	14.5
3	EU(27개 회원국)	102,651	10.5	EU(27개 회원국)	55,141	11.8	베트남	48,511	9.5
4	일본	71,121	7.3	일본	46,023	9.8	EU(27개 회원국)	47,510	9.3
5	베트남	69,090	7	독일	20,681	4.4	홍콩	30,654	6.0
6	대만	34,302	3.5	베트남	20,579	4.4	일본	25,098	4.9
7	홍콩	32,194	3.3	호주	18,707	4.0	대만	16,465	3.2
8	독일	30,257	3.1	대만	17,837	3.8	인도	11,937	2.3
9	호주	24,896	2.5	사우디 아라비아	15,980	3.4	싱가포르	9,828	1.9
10	사우디 아라비아	19,282	2	러시아	10,630	2.3	독일	9,576	1.9

출처: 한국무역협회

2010~2020 EU 27개 회원국 對한국 상품 무역 (1백만 유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U 27개 회원국의 對한국 수입										
35,779	33,095	33,310	31,620	33,114	35,576	34,648	44,036	46,056	47,426	44,064
EU 27개 회원국의 對한국 수출										
25,461	29,684	32,300	34,334	38,126	41,383	38,801	43,508	43,760	43,350	45,274
EU 27개 회원국의 對한국 무역 수지										
-10,319	-3,412	-1,010	2,714	5,012	5,807	4,153	-527	-2,296	-4,077	1,209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한국과 EU간 양자 무역은 기계장비(35.5%), 운송장비(19.5%)를 비롯해 2020년 전체 양자 무역의 96.1%를 차지한 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농산물 제품에 대한 양자 교역도 점진적으로 증대되어 2020년 전체 양자 무역의 3.6%를 차지했다. EU의 對한국 전체 수출 가운데, 농산물 제품 비중은 2010년 4.5%에서 2020년 6.7%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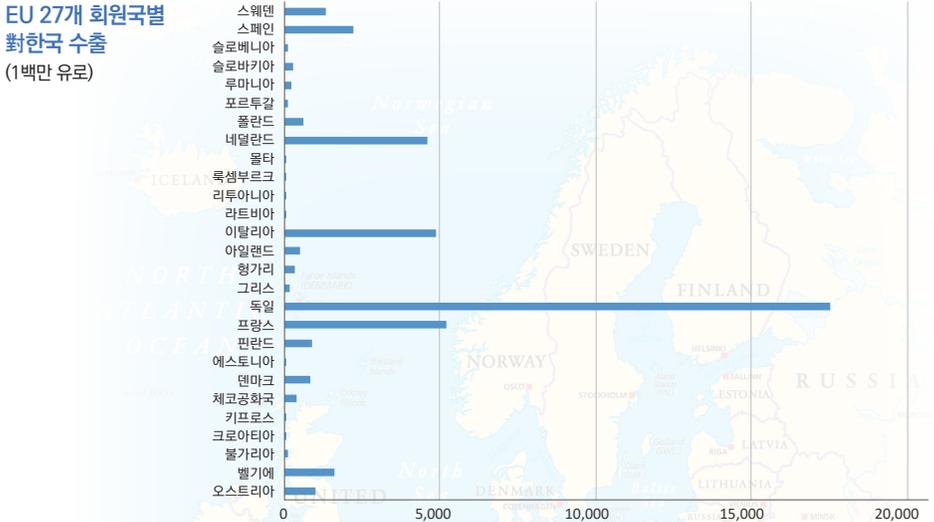
2010~2020 EU 27개 회원국 품목별 상품 무역

품 목	1백만 유로, %	2020	2010	2015	2020	2010	2015	2020	2010	2015	2020
		EU의 대한국 무역 수지	EU 27개 회원국 수입 비중			EU 27개 회원국 수출 비중			EU 27개 회원국 수출입 비중		
전체 상품	1,20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산물 제품 (WTO 농산물 협정에 정의 하의 농산물 제품)	2,810	0.2%	0.4%	0.5%	4.5%	5.2%	6.7%	2.0%	3.0%	3.6%	
비농산물 제품	-1,601	99.8%	99.6%	99.5%	95.5%	94.8%	93.3%	98.0%	97.0%	96.4%	
수산물	-14	0.2%	0.3%	0.2%	0.1%	0.2%	0.2%	0.2%	0.2%	0.2%	
공산품	-1,587	99.6%	99.3%	99.3%	95.4%	94.6%	93.1%	97.8%	96.8%	96.1%	
HS 분류		EU 27개 회원국 수입			EU 27개 회원국 수출			EU 27개 회원국 수출입			
① 산 동물; 동물 제품	1,094	0.2%	0.2%	0.2%	1.5%	2.1%	2.6%	0.7%	1.2%	1.4%	
② 채소 제품	372	0.0%	0.1%	0.1%	1.0%	0.8%	0.9%	0.4%	0.5%	0.5%	
③ 동식물성유지	117	0.0%	0.0%	0.0%	0.3%	0.3%	0.3%	0.1%	0.1%	0.2%	
④ 식품, 음료, 담배	1,089	0.1%	0.4%	0.4%	1.5%	1.9%	2.8%	0.7%	1.2%	1.6%	
⑤ 광물성 제품	-29	3.1%	2.6%	1.4%	1.5%	2.8%	1.3%	2.4%	2.7%	1.3%	
⑥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 제품	-259	2.3%	6.4%	15.3%	15.0%	12.5%	14.3%	7.6%	9.7%	14.8%	
⑦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 제품	-2,191	4.9%	9.1%	8.3%	3.7%	3.3%	3.3%	4.4%	6.0%	5.8%	
⑧ 원피, 가죽, 마구	1,027	0.1%	0.1%	0.1%	1.7%	1.9%	2.4%	0.7%	1.1%	1.3%	
⑨ 목재, 목탄, 코르크, 짚	308	0.0%	0.0%	0.0%	0.3%	0.6%	0.7%	0.1%	0.3%	0.4%	
⑩ 펄프, 종이 및 판지	212	0.2%	0.3%	0.2%	1.1%	0.7%	0.7%	0.6%	0.5%	0.4%	
⑪ 직물 및 기타 섬유제품	244	2.1%	3.1%	2.2%	2.0%	2.3%	2.7%	2.1%	2.7%	2.4%	
⑫ 신발, 모자 및 기타 모자류	338	0.1%	0.1%	0.1%	0.3%	0.6%	0.8%	0.2%	0.4%	0.5%	
⑬ 석제품, 유리 및 세라믹 제품	280	0.5%	0.5%	0.4%	1.0%	0.9%	1.0%	0.7%	0.7%	0.7%	
⑭ 진주, 귀금속 및 관련 제품	300	0.3%	0.2%	0.5%	0.5%	1.2%	1.1%	0.4%	0.7%	0.8%	
⑮ 비금속 및 관련 제품	-2,007	5.5%	8.9%	8.6%	7.7%	5.7%	3.9%	6.4%	7.2%	6.2%	
⑯ 기계장비	-3,331	46.9%	37.2%	39.7%	39.3%	30.6%	31.3%	43.7%	33.6%	35.5%	
⑰ 운송장비	1,287	26.5%	23.1%	18.3%	12.4%	22.2%	20.7%	20.6%	22.6%	19.5%	
⑱ 광학 및 사진 기기 등	1,674	6.4%	6.2%	2.8%	6.4%	6.1%	6.5%	6.4%	6.1%	4.7%	
⑲ 무기	-27	0.0%	0.0%	0.1%	0.0%	0.0%	0.0%	0.0%	0.0%	0.1%	
㉑ 잡품	332	0.5%	0.8%	0.4%	1.1%	1.3%	1.1%	0.8%	1.1%	0.7%	
㉒ 예술품 및 골동품	23	0.0%	0.0%	0.0%	0.0%	0.0%	0.1%	0.0%	0.0%	0.0%	
기타	358	0.3%	0.7%	0.8%	1.7%	2.3%	1.6%	0.9%	1.6%	1.2%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2019년,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독일이 한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였으며, 양국간 무역 규모는 269억4천만 유로로 EU 27개 회원국의 對한국 전체 교역의 29.7%를 차지했다. 네덜란드(12.0%), 이탈리아(9.5%) 및 프랑스(9.5%)가 그 뒤를 따랐다.

2019 EU 27개 회원국별 한국과의 양자 교역 (1백만 유로)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_2021년 3월 한-EU 양자 교역 최근 통계

2. 한-EU 서비스 무역

서비스 분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서비스 분야는 EU에서 그 어떤 분야보다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는 EU 전체 GDP에 4분의 3 정도 기여하고 있으며, EU 전체 일자리의 4분의 3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서비스 교역에서 EU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019년 EU27의 EU를 제외한 무역 파트너들과의 서비스 교역 규모는 총 2조 3백70억 유로로 730억 유로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EU FTA는 서비스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양자간 상품 무역 및 투자 증대로 전문적인 국경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서비스 교역이 확대되었다. 양자간 서비스 수출에서 목격되고 있는 인상적인 성장률은 서비스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문화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규모의 경제와 혁신은 양측의 서비스 교역 확대에 있어 중요한 요소들이다.

2019년 양자간 서비스 교역은 2010년 대비 86.3% 증가했다. 동기간 EU의 대한민국 서비스 수출은 98.9%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EU의 대한민국 수입 또한 67.4%로 크게 증가했다. 동기간 EU의 대한민국 수출이 연평균 8%를 기록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2019년 EU의 대한민국 수출 및 수입은 전년 대비 5% 증가했으며, EU의 대한민국 서비스 분야 무역 흑자는 전년대비 6% 증가한 57억 유로를 기록했다.¹²⁾

향후 몇 년간 한국과 EU가 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점차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며, 무역 자유화, 규제 완화 및 규정 재정립 과정을 통해 시장 상황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2019 EU 27개 회원국-한국 서비스 교역 규모 (1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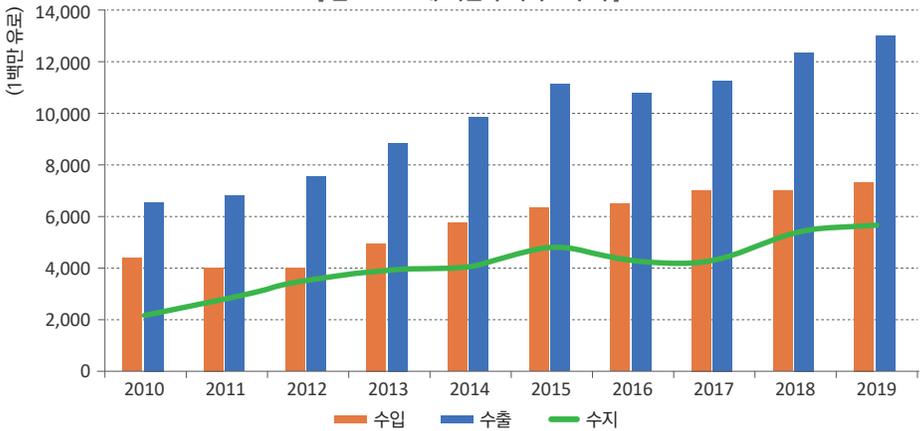
	1백만 유로				전년대비 성장률 (%)			
	수입	수출	수지	전체	수입	수출	수지	전체
2010	4,391	6,551	2,161	10,942				
2011	4,013	6,804	2,791	10,818	-9%	4%	29%	-1%
2012	4,006	7,547	3,541	11,554	0%	11%	27%	7%
2013	4,959	8,886	3,927	13,846	24%	18%	11%	20%
2014	5,770	9,851	4,081	15,621	16%	11%	4%	13%
2015	6,347	11,155	4,808	17,501	10%	13%	18%	12%
2016	6,493	10,778	4,285	17,271	2%	-3%	-11%	-1%
2017	7,011	11,309	4,298	18,321	8%	5%	0%	6%
2018	6,990	12,364	5,374	19,354	0%	9%	25%	6%
2019	7,350	13,030	5,680	20,380	5%	5%	6%	5%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12)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2. 한-EU 서비스 무역

[한-EU 27개 회원국 서비스 무역]



2019년 한-EU 서비스 무역은 교통운송(25.6%);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14.4%); 통신,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14%)와 같은 몇 개 분야에 집중되어 이뤄졌다.

2015~2019 분야별 한-EU 서비스 무역(1백만 유로)

	수입					수출					수지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6,347	6,493	7,011	6,990	7,350	11,155	10,778	11,309	12,364	13,030	4,808	4,285	4,298	5,374	5,680
제조업 외주 서비스	89	77	117	152	134	245	180	197	211	119	156	103	79	59	-15
유지 및 보수 서비스	174	191	227	258	269	147	175	240	225	262	-26	-16	14	-33	-7
교통	2,226	2,155	2,243	2,452	2,397	2,820	2,376	2,663	2,628	2,822	594	221	420	176	425
여행	166	184	272	268	394	945	1,125	1,353	1,320	1,371	780	941	1,082	1,052	978
건설	53	608	421	79	96	238	200	121	56	82	186	-409	-300	-23	-14
보험 및 연금 서비스	83	101	108	121	149	122	294	-101	83	166	38	193	-209	-38	17
금융 서비스	129	132	106	83	80	299	208	202	217	246	170	76	96	134	166
지적재산권 사용료	864	437	465	482	528	2,006	2,433	2,581	2,495	2,406	1,142	1,996	2,116	2,012	1,878
통신,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	158	145	204	541	639	866	731	897	1,750	2,221	708	586	693	1,209	1,582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2,366	2,424	2,815	2,471	2,571	2,820	2,554	2,547	2,796	2,622	454	130	-267	325	50
개인적 문화 및 오락 서비스	11	11	9	58	71	263	101	113	180	159	253	90	104	122	87
정부 재화 및 서비스	13	17	13	15	16	17	19	19	20	24	4	2	6	5	8
기타 서비스	16	11	12	9	6	367	384	476	383	530	350	373	464	374	524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2021년 2월 24일 업데이트된 자료 사용)

2019년 EU 회원국 가운데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는 독일로 한-EU 양자 서비스 무역 가운데 30%를 차지했다(EU 전체 수출의 21%, 전체 수입의 34.8%). 프랑스(EU 전체 수출의 14.2%, 전체 수입의 10.5%)와 네덜란드(EU 전체 수출의 8.8%, 전체 수입의 18.2%) 그리고 아일랜드(EU 전체 수출의 14.1%, 전체 수입의 2%)가 그 뒤를 따랐다.

2015~2019 EU 회원국별 한국과의 서비스 무역(1백만 유로)¹³⁾

	2015	2016	2017	2018	2019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입					수출				
EU 27개 회원국	6,347	6,493	7,011	6,990	7,350	11,155	10,778	11,309	12,364	13,030
오스트리아	66	71	77	93	82	113	120	131	171	207
벨기에	178	140	122	153	151	337	268	263	238	281
불가리아	3	3	5	3	2	11	11	11	11	11
크로아티아	1	2	1	2	3	33	40	45	43	47
키프로스	4	4	6	6	8	10	7	6	6	4
체코	326	361	387	372	371	107	130	149	159	166
독일	2,150	2,246	2,391	2,378	2,557	2,660	2,588	2,836	2,716	2,738
덴마크	354	249	290	345	318	702	602	681	718	806
에스토니아	3	3	4	6	6	24	24	23	20	14
그리스	33	29	39	46	68	211	176	242	272	267
스페인	194	189			195	435	540	604	605	608
핀란드	68	71	75	87	85	564	773	913	857	1,225
프랑스	1,106	1,293	1,261	812	774	2,085	1,930	1,572	1,853	1,854
헝가리	117	119	136	110	119	310	314	337	282	184
아일랜드	48	49	115	140	148	647	791	911	1,795	1,831
이탈리아	257	223	169	226	202	309	310	225	230	286
리투아니아			2	3	3			25	2	4
룩셈부르크	31	27	25	17	41	305	213	162	190	204
라트비아	7	6	6	5	6	2	3	4	3	4
몰타			3	3	3			3	11	12
네덜란드	718	695	899	1,187	1,334	1,227	1,038	1,183	1,163	1,151
폴란드	76	67	92	116	163	241	230	274	317	327
포르투갈	48	51	65	77	78	31	37	51	59	72
루마니아	29	43	22	11	17	14	15	15	19	21
스웨덴	168	143	150	140	173	656	497	524	508	594
슬로베니아	8	7	7	8	7	66	78	85	84	78
슬로바키아	346	397	406	437	437	25	24	34	31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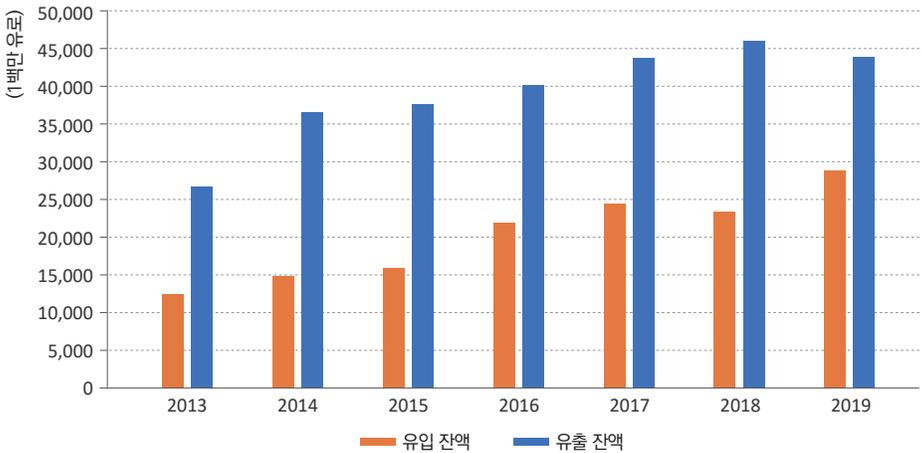
13)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주의사항: 기밀조항으로 인해 회원국별 총 무역규모와 EU 총 규모가 동일하지 않음)

3. 한-EU 외국인직접투자

EU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잔액 기준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EU는 한국 FDI 전체 잔액의 37%¹⁴⁾를 차지하며, 일본(24.3%)과 미국(14.5%)을 앞섰다. 그러나 2019년 EU의 대한국 FDI 잔액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440억 유로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대한 EU FDI 잔액은 2019년 전년대비 23% 증가해 290억 유로에 달했다.

2013~2019 한-EU FDI 잔액 (1백만 유로)

[한-EU 27개 회원국 FDI 잔액]



2016-2019 한-EU 외국인직접투자 (1백만 유로)

년도	1백만 유로				전년대비 성장률 (%)			
	잔액		금액		잔액		금액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2016	22,086	40,280	1,388	2,406	3%	12%	-45%	180%
2017	24,582	44,017	1,760		11%	9%	27%	
2018	23,611	46,197	2,709	2,314	-4%	5%	54%	
2019	29,099	44,045	5,071	-3,891	23%	-5%	87%	-268%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14) 출처: 한국은행(2019) 영국을 포함한 EU 28개 회원국 데이터만 제공 가능.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데이터는 2021년 6월 업데이트 될 예정.

2019년 EU 회원국 가운데 네덜란드가 EU의 對한국 FDI 잔액의 33%를 차지하며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독일(23%), 프랑스(9%) 그리고 헝가리(8%)가 그 뒤를 이었다. 네덜란드의 대규모 FDI 유입은 유럽의 많은 금융 투자가 네덜란드에 등록된 기업들을 통해 이뤄지며, 네덜란드의 기업 세제가 투자에 유리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對EU FDI 투자국 순위에서 1위(전체 FDI 잔액의 23%)를 차지했으며, 이어 독일(21%), 헝가리(10%), 체코(10%), 그리고 슬로바키아(10%) 순이었다.

2019 EU 회원국별 對한국 외국인직접투자 (1백만 유로)

2019	백만 유로			
	잔액		금액	
	유입	유출	유입	유출
EU 27개 회원국	29,099.0	44,045.1	5,071.1	-3,890.7
벨기에	1,661.0	2,072.0	131.0	57.0
불가리아	121.3	5.6	-6.4	0.5
체코	2,824.5		-13.0	0.0
덴마크	46.4	303.3	12.6	-52.8
독일 (1990년까지 독일연방공화국)	5,977.0	9,973.0	992.0	1,079.0
에스토니아	0.3	10.2	1.3	
아일랜드	31.0	871.0		67.0
그리스				
스페인	1,014.0	1,643.0	330.0	26.0
프랑스	1,749.0	4,087.0	505.0	-26.0
크로아티아	13.6	0.0	64.0	0.0
이탈리아	658.2	1,591.5	-259.1	94.1
키프로스	1.0		1.0	
라트비아	27.0	0.0	20.0	0.0
리투아니아	0.1		0.6	
룩셈부르크	-1,333.0	1,431.0	2,472.0	40.0
헝가리	2,945.2	3,688.3	579.2	68.9
몰타		0.0		0.0
네덜란드	6,629.7	14,553.7	-434.6	-5,517.6
오스트리아				
폴란드	1,957.5	-375.7	884.6	-359.7
포르투갈	168.4	28.3	-0.7	0.9
루마니아	95.8		-33.1	
슬로베니아	5.9	3.0	0.7	-1.1
슬로바키아	2,784.3		-33.8	0.0
핀란드	7.0	500.0	-2.0	303.0
스웨덴		2,566.6	68.5	265.7

출처: 유럽연합 통계청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1층 04637
Tel (82-2) 3704-1700 Fax (82-2) 735-1211
http://eeas.europa.eu/delegations/south_korea